

# ‘짜깍짜깍’ 만기 코앞 DLS… 기나긴 소송전 예고

일부 DLF 손실률 50%대 회복  
19일부터 순차적 만기도록 ‘관심’

투자자들 판매사 집단소송 준비에  
증권사 “불완전판매 없어” 방어막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  
에 처한 파생결합펀드(DLF), 파생결합증권(DLS)의 상품 만기가 오는 19일부터 돌아온다. 시한폭탄이 될 위기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30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발표하고 피해 분쟁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증권사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또 은행이 김앤장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해 방어전에 돌입해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 ◆ DLF·DLS 50~100% 손실 예상

DLS 사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원금 회수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는 독일 국채 10년물 연동 DLS·DLF 만기가 19일부터 돌아온다는 점이다. 전체 판매액 1266억원 중 1255억원이 우리은행에서 판매됐으며 11억원이 NH투자증권에서 팔렸다.

9월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국채 연계 DLS·DLF는 약 300억원이며, 10월

〈우리은행·KEB하나은행 월별 만기 도래 DLF 현황〉

만기도록 년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합계		
	상품건수	판매건수	판매잔액	상품건수	판매건수	판매잔액	상품건수	판매건수	판매잔액
2019.9	7	197	373.57	1	10	18.20	8	207	391.77
2019.10	5	148	303.29	5	86	196.46	10	234	499.75
2019.11	7	284	558.67	5	87	202.93	12	371	761.60
2019.12				2	20	44.92	2	20	44.92

/자료=김정훈 의원실



300억원, 11월 600억원 규모다. 이 상품은 금리가 0.2%보다 높으면 연 3~5% 수익이 제공되지만 이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만기일 금리가 0.7%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된다. 지난달 이미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져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달 7일 독일 국채 연계 상품 예상손실률은 95.1%였고, 김정훈 의원실이 발표한 은행 DLF의 지난달 22일 수익률은 98.0%로 원금 전액 손실 상품이 16개나 됐다. 지난 9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636%를 기록한 후 13일 기준 -0.485%까지 상승하며 최근 손실 규모가 50%대까지 줄어들기는 했지만 유럽 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19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달 7일 기준 발표한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도 3876억

원을 판매해 99.1%가 은행에서 팔렸다. 은행은 DLF로 판매했으며, 증권사는 DLS로 팔았다. 국민은행·미래에셋 대우·유안타증권은 정반대 구조로 설계된 상품을 팔아 수익구간에 있다. 이 상품의 89%가 개인 투자 자금으로, 사모 펀드이기 때문에 최소 1억원 이상 가입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꼴이었다.

이상품들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연계한 상품이었다. 이번 달에만 만기 도래 상품이 우리은행 7건, 하나은행 1건으로 판매금액은 391억7700만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 DLS도 이달 만기가 돌아온다. 판매량이 많았던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는 잔액이 6958억원으로, 지난달 7일 기준 예상손실률은 56.2%이다. 다만, 영국 DLF의 경우, 상황이 호전돼 기초자산이 되는 국채금리가 9일 0.660%에서 13일 0.760%까지 올라감에 따라 상당수 펀드가 원금을 회복했다. 영·미 CMS 연계 상품 만기는 올해 492억원, 내년

6141억원, 2022년 325억원 규모로 기간이 더 여유가 있다.

## ◆ 금감원·판매사 입장 차 ‘뚜렷’

금감원 자체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증권사·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며 “국감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중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증권사·운용사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것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전에 유사상품이 수익을 냈다 해도 이번에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 측은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과 수많은 서류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한 만큼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가 금융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이전에도 사모펀드에 가입하셨던 사람이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어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까다로운 상품 판매 절차와 고객 특성상 불완전 판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상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 입장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년 유사상품이 판매돼 왔으며,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손실 책임도 투자가 진다”며 “판매방법이 적절했는지 조사해야겠지만 발행사 책임까지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품이 왜 단일 기초자산에만 편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수가 1개면 손실 위험이 낮은 대신 수익률도 낮다”며 “지수가 3개면 1개만 떨어져도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1개로 설정했을 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에 판매사 책임을 물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문제는 없다”면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사전 방어막을 쳤다. 이는 김앤장이 파생상품 사건이었던 ‘키코 사태’ 때 한국씨티은행의 소송 대리인으로 100% 승소를 거뒀기 때문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연휴 마지막날 북적이는 명동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오가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 ‘대기업 채용’ 축소 31% vs 증가 14%

### 한경연 ‘2019 대졸 신규채용 계획’

대기업 절반 “신규채용 작년과 비슷”  
공채 아닌 수시채용 기업 55% 달해

대기업 신규 채용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수시채용과 인턴 등 통로는 더 넓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절반 가까운 48.9%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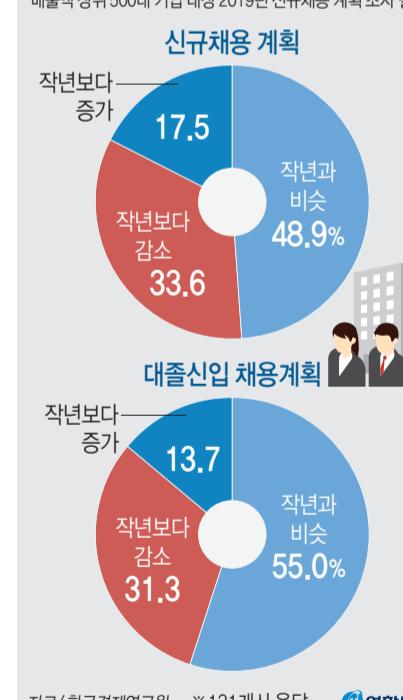
그러나 33.6%는 전년보다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늘리겠다는 기업(17.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대졸신입 채용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곳이 55%, 작년보다 줄인다는 곳이 31.3%였다.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대답은 13.7%로 신규 채용과 비교해도 더 적었다.

대졸 신입채원을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하는 기업도 55%로 절반을 넘었다. 수시채용 비중이 90%를 넘는 기업도

### 주요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2019년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29.2%나 됐다. 수시채용 비중도 평균 63.3%로 공채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

## 최대 5억 대출… 고정금리 차주 전환불가

》》 1면 ‘1%대 주담대 할증…’서 계속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장점은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라는 점이다.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기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증기관 대출상품보다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등)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돼 고정금리 차주는 제외된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

동금리가 적용(혼합형 주택담보대출)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정금리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형 정책 금융상품들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정금리 차주에게도 신청 자격을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들의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요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있는 대다수 차주는 이미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희주 기자 h89@

과 김주영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잠시 면담을 한 뒤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옮겨 치맥(치킨과 맥주)을 할 예정이다.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의 호프 미팅은

2017년 10월 이후 두번째다. 박 회장은 당시 현직 상의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노총 본부를,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상의를 찾았었다. 두 사람은 “노사 문제에 대해 대화로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의견을 같이 하며 첫 호프 미팅을 했었다.

/연합뉴스